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자기 육의 몸이 귀하듯이 하늘나라에서는 영을 가지고 살기에 자기 영의 몸이 귀하다. 자기 육의 상태가 곧 자기 영의 상태. 육신은 제2의 영과 같다. 고로 육은 보이는 영이나 다름없으니 네 육을 보고 영의 상태를 알라. 육신의 나무가 선하고 착하고 좋아야 영의 열매도 좋고 아름답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육과 영을 한 몸같이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 몸 하나 금빛 찬란하게 만들고 쟁기라.” 육도 마음도 영도 모두 일제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단장된 자가 되어야 평소 때도, 마지막 재림 때도 제대로 주를 맞게 됩니다. 육과 마음과 영은 하나입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여 의인도 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악인도 되는 것입니다. **육의 행위에 따라 마음도 그같이 되고 영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막 살던 그 몸을 제물로 드리니 잘 받겠느냐. 육도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절대 지켜 구원받아야 영도 그같이 된다. **육이 잘되어야 영도 잘된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실이 영의 마음과 몸으로 그대로 흡수되고, 영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다만 죽은 시체만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육과 같은 나무만 남겨 놓고 영과 같은 열매만 따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영이 육신의 수고와 노고, 행실과 공적, 사랑과 모든 성품을 다 흡수하여 크고 자라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육이 하면 마음도 한 것이고 영도 한 것이다. 이를 깨달으라. 고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육신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 준 것이다.**

‘세상을 멀리하라’ - ‘주님을 1순위로 하고 모든 것을 쓰고 살라’는 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나. 나와 동행하면서 내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육이 죄를 지으면 영도 같이 죄를 짓는다. 고로 육의 죄는 영의 죄다. 마음의 범죄도 육과 영의 죄가 된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 천국과 삶의 천국을 누리며 주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사랑·평에·예술 등 세상 것에 빠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이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며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각종 호색

을 즐기며 육신에 속해 육적으로 살지 말고, 육이 신앙에 속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하라.**”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본을 두고 살고, 돈과 다른 것들은 하나의 생활의 쓰임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경제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자들은 마치 간음하듯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돈을 줍니다.

**너희는 나를 최고로 중심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 살라.**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오직 남자만을 위해 살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늘 시켜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하고 싶어 하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려고 결심하고 행해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어 온전하게 됩니다.

휴거도 이 같은 이치로 말했습니다. 육신이 홀연히 변화하여 썩지 않는 영으로 살아나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홀연히 변화하여 예쁘고 부드러운 살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변화하여 머릿속에 녹화되고, 행실로 변화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육이 행한 것들은 홀연히 영으로 변화되어 영의 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말씀과 생각은 가지고 갑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주를 믿고 절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노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무질서의 세계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뜻있게, 존경스럽게, 권위 있게, 아름답게, 의롭게, 사랑스럽게, 기쁘게, 꺼림 없이, 보기 좋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못 쓴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서 절제하며 하나님과 나를 맘껏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쓰고 하고 싶은 것을 하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너희를 데리러 온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쌓은 의와 공적도 하늘나라에서 집이나 보물로 변화되어 영원히 자기가 쓰게**

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서 있다.” 지금 때가 되어 너희를 데리러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어서 회개하고, 제발 세상 좀 그만 사랑하고 나 사랑하면서 순종해. 나에게 붙어야 한다. 천사장이 나팔 불면 휴거하자고 너희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요즘 나의 심정을 제발 깨달아라.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좋아하고, 나를 최고로 중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살라. 지금부터 새롭게 하여 나와 일체되어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잘하면 천국에 갈 자들인데 못하여 지옥으로 가니 안타깝다.

섭리사는 빨리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완이 식어 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낙심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절대 주님을 신임해야 됩니다.